제346회국회 (정기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1월4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나. 기획재정부

상정된 안건

1. 업무보고 ····· 1
   가. 보건복지부
   나. 기획재정부

(10시45분 개의)

○위원장 나경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오늘 현안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한 이유는 그간 공청회와 간담회 등에서 논의되었던 아동수당과 다자녀카드 그리고 저출산 보완 대책에 대하여 정부부처의 입장을 들어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향후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정부가 준비하고 실시해 온 저출산 관련 대책들이 목표했던 수준과 실제로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의 체감도와는 많은 거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수당과 다자녀카드 도입 등의 방안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완전한 정책으로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아동수당과 다자녀카드에 대한 정책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깊이 있고 현실적인 논의가 함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아동수당, 다자녀카드, 저출산 보완 대책에 대한 보건복지부 총괄보고와 기획재정부의 재정·세제 지원 관련 보고를 듣고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해당 부처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는 보고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외에도 국무조정실에서 노형욱 국무2차장이 참석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부

나. 기획재정부

(10시48분)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동수당, 다자녀카드 및 저출산 보완 대책 관련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아동수당, 다자녀카드 및 저출산 보완 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존경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년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회복에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 사회 각계의 걱정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과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우리 사회는 초저출산 장기화로 인해 인구절벽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일본보다 2배 빨리 급감하여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700만 명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꺼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 초등학교의 22%에 달하는 1395개의 학교가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많은 학교들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교육·국방 등 모든 분야가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고 그 충격이 사회 전반에 쓰나미같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한 삶도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개혁 등 구조적 대응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일상화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제3차 기본계획 시행 첫 해인 올해 출생아 수는 인구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사력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출산율과 직결된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등 긴급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결혼의 희망을 불어넣고, 맞벌이 가구가 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과 문화를 결혼·출산 친화적으로 바꾸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양성이 평등한 가족문화,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의 공조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는 인구 변화를 보려면 최소한 20년이 필요하며, 일관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과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긴 안목을 가지고 경제계·종교단체·시민사회·지자체 등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인구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나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부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고득영 보육정책관입니다.

(간부 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인구정책실장이 오늘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저출산 대책 관련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아동수당, 다자녀카드,

저출산 보완 대책입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유럽, 일본 등 약 90여 개 국가가 도입한 수당으로서 기본적으로 아동빈곤을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복지정책 성격이 강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교육비용 보조를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급여로서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아동발달 도모, 아동 가구의 빈곤 예방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아동빈곤 완화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의 출산율 증가 효과는 미흡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등 출산율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7.1%로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아동빈곤율이 낮은 국가에 속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제기된 아동수당 도입 방안입니다.

박광온 의원님께서 도입한 안입니다.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약 554만 명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김광수 의원님 도입안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약 479만 명에게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세미나에서 발표한 이봉주 교수의 안입니다. 15세 이하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약 770만 명이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과 관련된 검토 필요 사항입니다.

먼저 현행 아동양육지원제도와의 조율입니다.

아동수당은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아동수당보다는 보육지원 확대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을 우선해야 된다는 논의에 따라 2009년도 양육수당, 2013년도 무상보육이 도입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도입 시에는 무상보육체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과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동수당 도입 국가는 우리와 보육 등 양육지원체계가 다르고 일본과 비교 시 우리나라 아동양육지원 규모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계층 무상보육제도를 갖고 있고 유럽의 경우 보육에 관한 한 대부분 차등보육 그리고 아동·가족수당 제도, 가정양육이용 경향이라든지 육아휴직 등이 정착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일본의 경우 아동수당에 2조 2000억 엔을 투입하는 등 총 3조 1000억 엔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육에 10조 6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13조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볼 때 우리와 일본의 재정지원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원 부담 관련 사항입니다.

프랑스, 일본 등 아동수당 도입 국가는 최근 재정부담을 이유로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제기된 안 중에 재원대책으로 아동수당세 신설, 기존 양육지원제도와의 통폐합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세는 국민부담 증가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현행 무상보육체계를 유지할 경우에 그 또한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도입은 현행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와 아동수당 도입 시 지원체계 구조조정 방안, 재원 확보 대책,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아동수당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페이지 다자녀카드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자녀카드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적 우대를 위해 할인, 감면, 우선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해서 체결한 은행이 카드를 발급하고 지자체 자체 지원보다는 은행 카드 차원의 혜택 위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부산시와 서울시에서 도입하고 그 이후 확산되었습니다. 카드사와 지자체 협약에 따라서 금융, 교육, 문화, 교통 등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해외 사례의 경우, 프랑스의 경우 정부에서 세 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대가족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철도요금 할인 등 정부 지원과 연계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의 경우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필요 사항입니다.

먼저 다자녀카드의 실효성 제고 문제입니다.

카드 자체의 단순 통합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체적인 다자녀 지원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카드가 국철요금 할인 등 정부 지원과 연계해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지원 카드 경우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여러 공적 지원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면·할인 등 추가 발굴하고 내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재정 지원 그리고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다자녀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 세 자녀 등 다양하게 지금 제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될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기존 카드와의 통합 문제입니다. 10년 가까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어서 이를 통합하는 데 대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합니다. 향후 다자녀카드 개선 방안을 포함해서 다자녀 가구 지원 내실화 방안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보완대책입니다.

1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보완대책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계획의 이행·점검·평가와 그동안 보완 작업에 대해서 지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지난 1월과 8월 사이의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7000명 정도 감소하는 등 2016년도 출산율에 대한 상당한 경고음이 켜져서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서 보완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보완대책의 기본방향은 2020년 출산율 1.5명 목표 달성을 위해 '출생아 2만 명+α 대책'으로 명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자녀 갖기 대책 강화라든지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둘째·셋째를 꿈꿀 수 있는 있도록 응원하는 지원 체계를 갖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주요 추진과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 자녀 갖기 대책 강화에서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부부 전체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해 스마트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입니다. 남성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인상하여 내년 7월부터 적용하는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택·원격근무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인프라 구축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초등돌봄 전용교실을 추가 확충하여 약 3600여 명이 추가 수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둘째·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하는 지원 체계로서 맞벌이 세 자녀 가구는 어린이집 입소 시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세 자녀 가구의 경우는 입소 배점을 2배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해서 두 자녀 가구까지도 지원하는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시 50㎡ 이상 넓은 면적에 대해서 세 자녀 이상 가구 우선 배정과 세 자녀 기준에 태아와 입양을 포함하였습니다. 공공부문에 두 자녀 이상 근무지 전보 우대를 공공기관으로 확산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점검을 정례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부세 지원과 지역 출산지도를 개발하는 것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완대책 추진에 이어서 후속 추진 상황입니다.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확대는 지난 9월부터 즉시 시행을 하였습니다. 37% 정도 지원 대상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달 휴직급여 인상,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평가하고 2016년 핵심과제에 대해

서 현장중심 평가결과와 성과지표 개선방안 등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인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우 기획재정부차관보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기획재정부차관보입니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장제원 간사님, 진선미 간사님, 김광수 간사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여러분!

국회와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운영된 이후 정부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위원님들의 고언을 일부 반영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 9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에 대한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제도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 다자녀 인센티브 강화,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원격근무의 법적 근거와 인프라 마련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에서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세제지원 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입니다. 주로 17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결혼, 임신·출산, 보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저출산대책을 확대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밝혀졌던 17년 계획은 21조 7000억 대비 8000억 증가한 22조 5000억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혼 분야에 있어서는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1만 호 확대하고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난임 지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부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학부모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한도를 상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아빠의 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인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제지원 방안입니다.

현재도 출산 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라든지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세금 환급 형태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생·입양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학교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의 재고용 시 인건비 10% 공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논의과제인 아동수당과 다자녀카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있는 아동수당의 개요와 해외사례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전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크게 재정투입의 효과성, 재원부담, 그리고 기존 아동지원제도와의 상충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재정투입 효과성입니다.

해외사례, 소득수준별 출생아 수 등 감안 시 현금지급의 출산율에 대한 영향이 아직 불분명한 만큼 재정효과성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부담에 있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한 아동수당세 등 목적세 신설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세제의 복잡성 및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동지원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자녀장려금 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도입 문제는 한정된 재원하에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자녀카드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제도 개관은 앞서 복지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자녀카드의 도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단일 다자녀카드 도입을 위해서는 다자녀 기준 설정이라든지 지자체와의 공감대 형성, 법적·제도적 기반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지부가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통합형 다자녀카드 도입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7분 하면 되겠지요? 미리 간사님들이 말씀을 안 주셔서 통상의 예에 따라서 7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광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기획재정부 차관보님 또 노형욱 차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특위가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말 절박하게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재앙 수준의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 것인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광온 위원 정책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가정양육수당이 0세에 20만 원, 1세에 15만 원 그다음에 2세부터 6세까지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다기보다 금액이 낮아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온 위원 예, 그렇지요. 가정양육수당이 대체로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순환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는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광온 위원 지역경제에 순환되고 있다, 가정양육수당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광온 위원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데 굉장히 가슴 아픈 통계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고소득층의 출산율은 크게 증가했고 저소득층의 출산율은 낮아졌다는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전체 분만 건수 가운데 고소득층 비중이 10년 전에는 39%였던 것이 최근에는 51%로 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분만 건수는 34%에서 22%로 줄어들었어요. 매우 심각한 일이지요. 출산의 양극화인데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은 뭐라고 할까? 대증요법 또는 명확하지 않다고,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아동수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까지 시행했던 정책들은 효과가 명확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일반적으로 그동안 1차·2차 저출산대책 기본계획이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찔끔찔끔 어떤 대책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마취제 같은 것을 줘 가지고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는다. 아주 직효가 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는 검토할 단계가 된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소극적으로, 제가 보고서 보니까 이게 다들,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것 계속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이어서 제가 안타까운데요. 아동수당 물론 검토를 하셨는데 이 아동수당이 어떻습니

까? 아동의 현재 빈곤율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건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 효과를 보면 아동수당이 빈곤율을 많이 높인 걸로 되어는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빈곤율을 높인다고요, 아동수당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 빈곤율을 낮추는 거지요.

○박광온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건 아동수당은 아동의 빈곤율뿐만 아니고 출산율을 높이는 궁극적인 해법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물론 아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나의 국민으로서 자랄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중산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질, 빈곤층으로 떨어질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이. 그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아동수당 문제 누구보다도 저는 보건복지부장관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동수당이 아동의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저출산을 극복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분 또 효과가 없다는 분, 아직 좀 명확한 결론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광온 위원 그러면 어느 세월에 명확한 근거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도입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여태까지 써 온 약들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오히려 반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새로운 약을 써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정양육수당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84% 정도가 경제활동에 그대로 지출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아동수당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방법은 바우처를 통해서 주소지가 있는 그 거주지역 내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몰에서도 못 하게 하고 지역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까지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온 위원 저는 이 부분은 기재부차관께서 또 노형욱 차장께서도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때다, 이 문제를 방어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아동수당에 대한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복지부장관께서 말씀하신 정책효과라는 측면 그 이외에 현실적인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규모로 설계할지에 따라 규모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 있던 보육지원 그다음에 양육수당 이런 제도하고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실제 집행하는 민간기관들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모든 지원체계를 아동수당으로 통합을 하고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면 이게 굉장히 명쾌하고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문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단계를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위원님.

○박광온 위원 지금 해 주신 말씀, 그런 우려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정양육수당과는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아동수당을.

그리고 이 재원 확보방안으로 아동수당세를 도입하자, 목적세를 도입하자 하는데 아까 기재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목적세를 저희들이 도입했던 과거의 전례는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 방위세를 도입했었고, 지금 교육세가 있어요. 그 시대정신에 맞게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할 때 그런 목적세를 도입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나라의 존망, 존폐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의 장래와 직접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노력을 정부에서 이제 할 때가 됐다는 거지요.

이 차관님.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앞서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복지부장관님과 노형욱 차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 방금 목적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재정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칸막이를 두는 것은 재정운용상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그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목적세는 기본세액에다 서텍스(surtax)로 또 붙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사실상 증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제도와 그다음에 우리 부담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국회나 이런 데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광온 위원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겁니다, 제 말씀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광온 위원님은 아동수당 법안도 발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1분 더 드린 겁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기존의 양육수당이라든지 기존의 보육체계, 우리 보육지원시스템하고의 중복되는 부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것은 저는 사실은 좀 나이로 제한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존 시스템 한꺼번에 못 바꾸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우리가 아동수당을 도입한다든지 이래서 조금 우리가 활발하게 아동수당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광온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경원 그러면 다음은 장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위원 장제원입니다.

오늘 대통령의 두 번째 사과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출산특위의 새누리당 위원님들이 놀라운 출석률을 보이셨는데 오늘 사실 한 분도 출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과연 젊은 부부에게 출산을 하라고 어떤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부모의 권력이나 부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라고 대한민국을 얘기할 수 있을지, 아동수당을 준다고 또 다자녀카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부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가의 근본부터 다시 세우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침통한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나 아동수당 문제나 다자녀카드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나온 모습을 보니까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민의당에서는 0세부터 6세까지 10만 원씩 지원하라, 3조, 3조…… 그다음에 박광온 의원님은 나이의 차등 순서로 이렇게 아동수당을 줘라, 또 국회특위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대한민국 보육 전체의 틀을 바꿔서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또 저희 새누리당 특위에서는 생애전환기에 따른 필수복지로 아동수당을 도입하자, 0세부터 5세까지는 보육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6세부터 12세까지는 초등학생에 맞는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13세부터 18세까지는 청소년의 사교육을 철폐시키고, 19세 이상은 대학등록금을 감경시켜 주자, 이런 차원의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트롤타워가 보건복지부라면 아동수당 문제가 이렇게 정치권의 화두가 되어 있는데 최소한 한국형 아동복지 아동수당을 어떻게 줄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용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만날 하는 얘기가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논의의 큰 틀에서 논의를 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세월이에요. 만약에 아동수당, 이를테면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저출산의 전담기구가 있었다고 그러면 아동수당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연구와 용역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행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자녀카드는 각 지자체에서 한다면서요?

기재부차관보 아십니까, 이번에 행자부 예산 중에 단 1원이라도 저출산 예산이 있는지? 없습니다.

자, 어느 부서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특위를 계속하고 아동수당 문제, 컨트롤타워 문제를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가지고 나온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막대한 예산이 든다' '외국의 사례가 이러이렇습니다'……

외국사례 저희 다 알아요. 뭔가 안을 들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용역을 할 테니까 기다려 보라든지, 다자녀카드도 무슨 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무슨 안을 가지고 와야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거 아니냐는 거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책임지는 부서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컨트롤타워는 안 하겠답니다.

국무조정실 차장님, 컨트롤타워 설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예, 총리가 주재하시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그다음에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국조실장이 주관하는 차관급회의, 그다음에 실무적으로는 제가 주관하는 TF 운영을 통해서 지난 8월에 우리가 보완대책도 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부처 간에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장제원 위원 아동수당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예.

○장제원 위원 아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기 과제로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책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과제 대상이 아닙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이것은 좀 금방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제원 위원 금방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최소한 연구용역이라든지…… 한국형 아동수당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박광온·김광수·장제원·나경원 안이 다 있어요. 그분들의 안을 놓고 또 아동수당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여러 가지 놓고 뭔가 용역을 하든지 연구를 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정쩡하게 갖고 와 가지고 '외국 사례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재부 차관보님, 이번에 담뱃값 인상해 가지고 국세 여유분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

○장제원 위원 3조 6000억입니다. 저보다 모르세요. 이 3조 6000억이면 김광수 의원안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다양한, 기재부 정도 되면 다양한 세금의 세수가, 잉여세수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본다든가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님이 컨트롤타워라면서요. 이렇게 가져와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2개의 주제입니다. 다자녀카드, 아동수당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특위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 질문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여러 분들이 안을 제시해 주신 것도 저희 알고 있고, 또 2009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는 중이고, 저희도 이 아동수당이 아주 큰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연구용역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제원 위원 그래서 제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면 모든 부서에서 내 책임이 아닌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장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국민의당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제원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작년에 출산율 1.24였다가 올해 상반기에 합계출산율이 얼마지요,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올해 1.22까지 떨어졌습니다.

○김광수 위원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합계출산율이 훨씬 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한 1만 9000명 정도, 출생이 저조해서……

○김광수 위원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거의 무용지물 됐고 그렇게 많은 돈 투자해서 효과성도 없었고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자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관심이 없어요.

현안도,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거의 국정 동력 자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는, 아마 이 국가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부마저도 전혀……

기재부는 이게 지금 검토의견이라고 가져오셨습니까, '효과성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기재부는 투자 대비 효과만 생각하지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돈을 얼마 투자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다 이런 정도지 지금 출산율과 관련되어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어떤 투자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지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김광수 위원 그렇지 않은데 검토의견을 이렇게 가져오십니까? '재정의 효과성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계속 검토 중, 검토 중…… 뭐 선행될 필요가 있으면 이것 분석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한번 해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지금 현재 저출산 대책 전반에 대해서 심층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보완되면 저희들이 효과에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쨌든 아까 박광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아이도 돈이 있어야 낳는다는 말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보면 현실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동수당 부분들을 제기를 국회에서 했으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멕시코, 터키, 미국, 네 나라 빼놓고 나머지 다 아동수당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그런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 없이 지급합니까? 다른 것은 선진국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먹이면서 예산 세우던데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 사례는 검토도 안 해 보셨어요? 좀 답답해 보이고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져오셔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 국회에서 제안이 됐으면 아동수당 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는 거지 전혀……

아직도 '검토 중입니다' '효과성 분석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답답하지요. 너무 정부의 안이한 대처, 답답해 보이고요.

보건복지부장관님, 한 가지 물을게요.

산부인과 관련해서 출산 인프라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산부인과 숫자가 많이 줄고,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지요. 2001년에 270명 정도 됐던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가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2016년 올해 96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네요. 급격하게 붕괴되고 그렇게 산부인과도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산부인과 전문의의 한 3분의 1쯤, 30% 정도는 아예 분만을 받지 않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산부인과 폐업 비율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출산 인프라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지방으로 갈수록 더 출산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서울의 모성사망률이 10만 명당 4.5명인데 강원도는 심각하지요. 거기는 10만 명당 29.9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거의 7배 가까이 모성사망률이 높아요. 지역에 갈수록, 특히 출산 오지, 분만취약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이것 좀 대책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부 대책 뭐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출산 인프라가 약화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이런 데는 분만 산부인과, 외래 산부인과 또 순회진료 산부인과 이런 것을 지금 저희가 확충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37군데의 분만취약지가 존재

를 하는데 저희가 2020년까지 이것을 다 해소할 목표로 분만취약지에 내년에도 2개를 더 분만 산부인과를 개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또 야간 분만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인센티브를 좀 주고요. 또 분만취약지 가산료를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건정심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산부인과 전문의 자체가 요즘에 의사 지망하는 학생들도 생명과 크게 관계가 없이 돈 되는 곳으로 주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특히 외상외과 세부 전문의도 아주 급격하게 문제가 생겨 버렸고 산부인과 전문의도 돈이 안 되니까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인력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지요.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도 저희가 인력수급 지금 말씀주신 것 같은, 소위 말하는 비인기과에 대한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아니, 이게 단순히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재정 투입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요. 맨날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전에는 산부인과, 비뇨기과, 외과, 흉부외과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더 금전적 지원을 해 주던 게 있었는데 그게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해서 지금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인천 연수갑 출신 박찬대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 위기로 인해서 여야, 국민, 시민 할 것 없이 모두가 나라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또 정부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시급하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선해야 될 정책이라는 생각으로 이 특별위원회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경원 위원장, 장제원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박광온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지만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지금 심각하게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검토나 도입에 대한 의지는 많이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동수당은 현재 90여 개 국가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고 또 OECD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제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여쭤 보려고 했는데요. 대부분이 출산율에 대한 영향이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저희가 아동수당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우리 보육이나 이런 가정양육수당 같은 거에 대한 정합성 같은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주신 것 또 우리가 2009년도 용역해서 나왔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게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물론 막대한 재원이 들어서 아동수당을 도입을 해도 출산율에 대한 영향력이 불분명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 처음에는 저출산 극복보다는 아동복지 측면에서 도입한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저출산 극복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포함한 가족정책의 확대로 인해서 출산율이 상승했다고 하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을 텐데요. 아까 목적세를 신설하는 등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도입하게 된다면 들어가야 될 마땅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 국가적인 차원으로 아동수당을 도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서비스 중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당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될 텐데 결국은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런데 이런 사회적 합의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박찬대 위원 이러한 사회적 합의라든가 국가적 논의가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간사, 나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저출산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협의체들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사회연대도 운영을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을 연계하는 연대 회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럼요. 저희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전 국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운동까지 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카드 발급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아홉 곳이 다자녀카드 발급 기준이 여전히 세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두 명은커녕 한 명에 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자녀카드의 기준을 세 자녀로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둘째도 낳지 않는 부부가 많은 상태에서 둘째를 낳게끔 하는 유인책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다자녀카드,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수 인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적용 대상이 많은 두 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자녀 기준도 어떻게 설정할 거냐, 또 카드를 어떻게 통합을 할 거냐, 중앙과 지자체와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가 필요해서 정책연구를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 연구해서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장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정말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006년에 다자녀카드 도입된 이후에 다자녀카드의 혜택은 주로 주유소라든가 영화관 등 카드사 우대혜택이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지자체가 제공하는 혜택은 적었다고 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다자녀카드가 발급된다면 철도,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등 공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카드 발급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고 계신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아직은 저희가 검토는 솔직히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전부 워낙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서 이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같이 연구 과정에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위원 정부가 직접 발급하는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36으로 가장 높습니다. 결국은 일과 육아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물리적으로 좋은 형태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장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 복지부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올해 원래 당초 목표가 93개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10월까지 제가 알기로 한 150개가량이 더 증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직장어린이집이 가장 만족도가 높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미이행 사업장 관리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해부터는 공개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1차 시정명령을 10월 달에 각 단체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봐서 그것이 미흡할 경우에는 2차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때는 강제금 부담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박찬대 위원 지금 질의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자세한 정책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도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는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틀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아직 진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관계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박찬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 오늘 여러 일정이 중복되는 바람에 좀 늦게 왔습니다만 정진엽 장관님을 비롯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때문에 애쓰는 분들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업무 중의 하나다(one of them)으로 보니까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별다른 인식이나 또 시책 추진이 평범한 일상적인 업무로 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 올해 출산율이 작년보다 더 떨어진 게 어떤 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중첩돼 있겠습니다만 어떤 점이 제일 문제가 됩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들 분석으로는 우선 일단 작년 메르스하고 경제 침체 이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출산율도 같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경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반기가 끝나면 상반기의 출산율이 어떻게 됐느냐, 상반기에 뭐가 문제가 됐느냐, 뭐를 우리가 보완할 것이냐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보고, 우선 저희가 올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출생률은 나오지 않았지만 출생아 수를 보고 너무 심각해서……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출생자 수가 적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을 봐서,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긴급 보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래서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내의 관련기관도 많지 않습니까? R&D 연구기관도 많은데 거기서는 주로 어디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전문적인 연구라든가,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 나왔다, 이게 처음 나온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누가 검토하고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주로 어디서 합니까? 보사연에서 이것 하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보사연하고 저희가 같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런데 연구하면, 벌써 이것 보사연이 언제부터 한 건데 뭔가 개선되고 다른,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법적인 계획만 할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정례적으로 체크하고 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인지 왜

출산 아이 수가 감소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소위 작동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보사연하고는……

○이명수 위원 보사연에 저출산 연구팀이 따로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이명수 위원 있는데도 이렇게 어려운가요?

그다음에 3차 기본계획이 이미 확정됐는데 여기 지금 보완한다고 나왔는데요 이것 언제까지 보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번 8월 달에 발표한 보완책이요?

○이명수 위원 우리가 그동안에도 여기 위원회 등 여러 군데서 많이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된 과제 중에 채택할 것도 있고 채택 못 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완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종합적인 1차 보완책에 대한 대책은 지금 다……

○이명수 위원 이게 5년짜리 계획인데 또 다 지나가서 보완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게 나오면 바로바로 검토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이명수 위원 장관님, 그리고 이것을 담당 인구정책실만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서 여러 가지 제안된 것을, 우리가 여기 대책위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시책 추진에 대한 결과물이라든가 사후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자꾸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부러지게 금년 말까지 다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반영됐습니까, 저출산 시책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저출산, 올해보다 증액된 게 한 사천……

○이명수 위원 총 얼마가 필요한데…… 1조가 필요한데 얼마 투자했다고 하잖아요, 해마다. 그러면 '몇천억 중에 얼마가 지금 기재부에서 반영이 됐고 얼마가, 뭐가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전반적으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저희가 정부안에서 냈던 것보다 예산이 더, 제가 알기로 거의 4000억, 5000억 가깝게……

○이명수 위원 늘어났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늘어났습니다.

○이명수 위원 증액이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증액이 됐습니다.

○이명수 위원 복지부가 요구한 것보다 오히려 기재부에서 늘려 놨다 그 말씀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전부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5000억이 필요한데 지금 1조가 됐다 그 말씀이냐고요. 수치상은 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저희가 21조 9000억인가 요청을 했는데 22조 4000억이 예산 확정됐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러면 지금 반영 안 된 것 중에 저출산 추진하는 데 꼭 필요한데 반영 안 된 것들이 중요한 게 뭐 뭐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그것은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위원회 나오실 때 한번 착 정리하고, 나가면 위원들이 뭐 질문할까 다 준비하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데 이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이런 것을 다 하고 나오셔야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죄송하지만 잠깐만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명수 위원 예.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단기 보완대책을 8월 25일 날 저희가 서둘러서 발표를 한 이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세법 개정안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명수 위원 세법 개정안은 그렇고, 지금 세법 개정안 되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저출산 시책이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뭐를 지금 더 추가로 해야 되느냐 그 얘

기입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그래서 관련부처 간에 당장에 필요한 사업들 리스트를 8월 25일 대책에 발표한 그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는 다 담아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명수 위원 그게 얼마예요, 추가로 한 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명수 위원 이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저도 공무원 했지만 이렇게 그냥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고 하지 말고.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예산안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도 그렇게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명수 위원 이거 진짜 눈에 불을 켜고 이것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컨트롤타워, 지난번에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까지 냈습니다만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아니라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재해, 총리가 회의해, 장관님이…… 이분들이 컨트롤타워예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아니라 기구가 없는 게 아니라 기능을 안 하니까 문제라고요.

지금 그런 것도 여기 나오면 당연히 딱 해서 '얼마가 필요한데 뭐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결위 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게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 줘야지요.

지금 아동수당 또 다자녀카드 이것은 정부 입장은 뭐예요?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아직도 판단이 안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지금 저희가 아직은 다 결정을 내린 상태는 아닙니다.

○이명수 위원 여기에 나오기 전에 이미…… 아까 전문 연구팀이 보사연에 따로 있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서 다 연구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다자녀카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동수당은 이런데 위원님들 의견은 좋지만 우리 현실상 여기까지만 반영하고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뭐 이걸 얘기해야 그다음에 접근된 이야기를 가지고 또 그다음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방금 말씀하셨던 단기대책에 포함된 예산이 16년 기준으로 4470억이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 6788억, 그래서 2317억이 증감된 안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정부 예산에 이미 추가 반영됐다는 얘기지요?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그렇습니다. 17년 정부 예산안에 담겨서 지금 국회에 와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자료 줘 보세요.

○위원장 나경원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다른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하나만 물어 볼게요, 1분만.

○위원장 나경원 장관께서 진선미 위원님 질의까지 조금 듣고 가셔도 될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응급의료시스템체계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셔야 해서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진선미 위원님 먼저 복지부장관께 질의해 주시고요. 이석하신 다음에 마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뒷부분에 '10월 28일에 시도와 함께 복지부·행자부 공동 주관 시도 저출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논의됐던 주된 게 뭐가 있었나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담당 국장이 대답하면……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대 회의 형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지역사회 협의체 네트워킹 구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출산 극복 과제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던 거라는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아니요. 원래 있는 것은 아니고……

○진선미 위원 처음인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단체, 여러 경제계 단체 이런 데하고 네트워킹을 지자체별로 구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정책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지금 각 지자체별로 MOU를 체결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 지자체하고의 협의체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네트워크가 완료된 이후 첫 회의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협의체의 성격이?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된 이후에 지자체와의 첫 회의.

○진선미 위원 그러면 이후로 이 협의회의 비전은 뭐예요? 어떤 취지로 뭘 하겠다는 취지신가요?

○보건복지부인구정책실장 이동욱 지자체별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앙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 활동을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중앙에서는 이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면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장관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다양한 간담회도 하고 또 국회 안에 별도의 포럼도 있고 이래서 그런 다양한 논의구조에 가 보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갖기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모든 문제들에 직접적인 해답을 제안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저는 너무 답답한 게요 지금 혹시…… 다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세계 성 격차 보고서라는 것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시지요, 10월 26일에?

그런데 성 격차지수가 지금 여전히 우리가 최하위더라고요. 2009년 이후 계속 추락해 가지고 지금 겨우 117위이고 그 이후로의 비교되는 국가들은 주로 아랍 이런 나라니까 결국은 우리가 거의 최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점점 더 일·가정 양립 이런 얘기들이 계속 논의되는 것의 근간은 결국은 여성이 일도 하고 아이도 잘 키울 수 있고 또 대접받고 이런 사회의 분위기가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되는 걸까요? 혹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차관님?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복지부차관입니다.

저희가 3차 저출산 대책을 만들 때 작업기간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분과를 만들어서 그러면 과연 1·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뚜렷한 변화가 없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각 분과별로 해서 정말 그 분야의 다 망라한 전문가 분들이 1년 가까이 논의를 해서 3차 대책에 그래도 상당히 체계적인 대책을 담은 것이고요.

그 체계적인 대책 안에는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가에 대한 반성과 대책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보육·양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만으로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출산과 양육·보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 외에 어떤 요소들이 이러한 환경을 막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이 결국 사회구조적인 그런 요인들, 일자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 애를 낳고 나서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교육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이런 문제들에……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3차 대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을 태클하려고 시도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도 계속 논의되는 것이 사실은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대표하는,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가 아니라 지금의 그런 구조 자체를 뭔가 혁신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안인데 이 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아동수당이 도입되려면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관련된 부처가 함께 모여서 TF 형식으로라든지 좀 뭔가 실행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소위를 꾸려서 무엇을 하는 것처럼 아동수당만 가지고 그 아동수당과 관련돼서 정책들을 고민하고 바꿔 내야 될 관련부처들의 중심들이 모여서 이것을 좀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짧게 고민해서 빠르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논의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아동수당의 도입을 정부 내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별도로 만드는 문제는 아동수당의 도입을 고려할 때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무상보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또 양육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들을 굳이 따지신다면 복지부와 재정당국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해서 국조실이 같이 협업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상으로는 무상보육을 하고 있고 양육수당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동수당의 도입을 전제로 해서 검토하기는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위원장 나경원 진선미 위원님, 더 추가질의·보충질의……

이따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분 정도 더 드리면 됩니까?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다음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인재근 위원입니다.

장관님이 가셔 가지고, 장관님이 의사선생님이라 장관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차관님께 그냥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임산부 산전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지요, 시행한 지가? 그런데 저희 동네 제 지역사무실의 여직원이었는데 지금 임신 9개월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시행한 다음에, 9월 3일 9월 17일 두 번 초음파검사를 받을 때는 진료비가 2만 원밖에 안 됐는데 10월 1일 그 시행한 다음에 검사를 받았더니 3만 2000원을 지불했어요.

급여화를 했는데 오히려 1만 2000원 더 비싸게 지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한 지 한 달 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나타날지 그 예상을 못 하셨는지. 또한 보건당국의 얘기처럼 일부 문제는 아닌 듯하다는데, 이렇게 피해를 본 산모들이 지금 아주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관련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6% 정도는 경감이 됐고 경감된 수준도 약 한 29% 정도가 경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 의료계의 100명으로 구성해서 1년 동안 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의료인들이 모이셔 가지고. 그러면 초음파를 건강보험에 넣기 위해서 적정한 수가를 하려면 산정 가격을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 가격을 정했을 때 일부에서는 임산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덤핑하는 일부 의료기관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거의 3~4배 낮은 가격으로…… 임산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초음파 가격을 낮춘 그런 게 아주 특별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돼서 그분들이 정한 수가체계 안에서 이런 절감의 혜택이 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보험으로 저희가 커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이익이 발생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들을 관련 대책을 세워서 마침 오늘 오후에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안건을 논의해서 그런 임산부의 부담이…… 지금은 임산부의 부담이 상급병원 가면 60%, 의원급에서는 30%까지 돼 있는데 이 부담을 20% 정도씩 각각 낮춥니다. 그래서 의원급에서는 10% 상급병원에서는 40%로 낮추는 그런 안을 가지고 오늘 오후에 건정심에서 논의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덤핑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비슷한 수준이 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재근 위원 제가 중매한 신혼부부가 아기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대요. 그런데 이 초음파가 쌍둥이는 더 비싼가 봐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래서 그 다태아 문제도 저희가 그 100인 협의체에서 다태아 수가를 100% 가산하는 것으로 수가를 정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50%만 가산하는 것으로 수가를 낮추는 것으로 오늘 오후에 건정심에서 논의가 됩니다.

○인재근 위원 오늘 오후에 다 결정되네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인재근 위원 다음 국무조정실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아동수당이 아동이 있는 가정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지역아동센터는 편의시설과 공부와 문화 활동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부방이지요. 예전의 공부방을 지금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를 정부가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변신시켜 가지고 정부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취약계층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시설도 좋고 종사자들이 열의도 있고 대상 학생과 부모들의 참여도 기대도 높은데 정작 정부의 지원은 열정이 없어요.

이것은 복지부장관님한테도 제가 해 가지고 종사자들을,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올려 달라는 그런 질의도 했는데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를 복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저출산 대책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부터 출발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왔고 다른 어떤 지원 항목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대상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백 개로 시작하던 게 거의 4000여 개 정도로 규모도 늘어났고, 그런데 다만 지원하는 센터의 수와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동시에 늘리기에 좀 한계가 있어서 속도 조절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의지나 이런 것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아까 나온 아동수당 지원 문제를 논의할 때도 결국은 연령 대상이라든가 지원 내용 이런 것을 봤을 때 보육에 대한 지원과 포함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인재근 위원 저도 국회에 오기 전부터 아동들을 돕는 일을 해 왔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어학원에 못 가는 공부방의 그런 아동들에게 교육시켜 주고 하는 것을 위탁사업으로 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아동…… 그리고 민간도 같이 많이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더 열의를 가지고 그분들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예,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인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능력이 출중한 방문규 차관님이 계시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천생 방법은 저출산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어제 국회에서 결의안도 통과했는데, 여기 노 차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전체가 다 결의안을 낸 것이니만큼, 물론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심대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보완 대책을 일부 마련했습니다만 아직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 소위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시술 관련해 가지고 체외수정 시술 지원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렸고 그리고 소득과 관련해서도 완화를 해서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 제보가 들어오기를 이게 일선 병원에서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을 세 번 할 동안에, 지금은 4회로 늘어났습니다만, 첫 번째보다 세 번째 쪽의 성공률이 높아 가지고 병원에서 의도적으로다가 소위 나랏돈을 타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안 해도 관계없으니까……

이거 담당 국장 누구예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강호 인구아동정

책관입니다.

○김학용 위원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러니까 의료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것을 한번 자료를 조사해서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체외수정하는 그런 병원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안 주더라도 결과라도 저한테 꼭 얘기를 해 주세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될 텐데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지금 사실 복지비 중에서 새는 복지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꼭 좀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무상보육과 양육 시스템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대로다가 지원을 안 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어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회에서도 많이 주장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예를 들면 기존에 이중 삼중으로 돼 있는 영유아를 떠나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지원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늘 주장을 해 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모두 다 주는 이런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보편적인 복지에서 지금 국가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시사할 점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 다 받는 혜택은 혜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그 혜택은 한 번 주면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특히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입장에서는 잘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실 실효성이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낳아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대학 학자금, 이게 국립학교를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주로 사립을 가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학자금 문제. 그리고 또 결혼을 할 때 집을 하나 사 줘야 되는데 주택 값이 천정부지라 특히, 지방은 저렴합니다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 취업을 해야 될 텐데 취업이 제대로 안 된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가장 저출산을 유도하는 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국가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떻게 정책의 방향을 잡아서 할지 그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 가지고 전체적으로다가 제대로 된 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인구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차관님 당연히 보도를 보셨으리라고 압니다마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육아휴직자 해고하는 것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쪽에서는 낳으라고 난리인데 애 낳아 가지고 조국에 큰일을 한 사람들에게 애 낳아 가지고 육아휴직 했는데 그냥 회사는 나오지 말고 집에서 죽 애나 보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사실……

기재부차관보님.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예.

○김학용 위원 기재부에서 사실 이런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 할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관 부서랑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육아휴직자 많지도 않아요. 근로자 22명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니 위로금을 챙겨줄 때 나가세요. 당신이 나갈래요 아니면 당신 남편을 내보낼래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게.

그래서 아마 이 기사를 보고서 상당한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역시나 그냥 낳지 말아야겠다.' 저는 이렇게 임신을 포기했을 확률도 대단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정말 출산 장려하는 정부나 국회에 찬물을 끼얹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1분.

○김학용 위원 그리고 제가 차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돈 드는 것은 돈이 들어서서 못 한다 그러지만 천차만별인 다자녀카드 통합 운영하는 거 이거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용역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한 1년, 2년 지나면 앓느니 죽지요. 이거 차라리 그냥 무료로 할 테니까 나한테 업무를 맡기세요. 그러면 내가 직접 다 맡아서라도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니,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누가 딱 다 잡아 가지고서 제대로 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제대로 혜택 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 둘 낳은 사람한테는 실버 카드, 셋 낳은 사람한테는 골드 카드, 넷 이상은 플래티넘 카드를 해 줘 가지고 확실하게 어디 돌아다니면 '정말 애를 낳기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좀 파격적으로다가 유관기관 또 민간단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새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것 얘기하면 협조 안 할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생각지 못하는 데……

밥을 먹으러 가면 식당에서도 할인해 주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고속도로 가도 통행료 할인해 주고, 국립공원 가도 장애인주차장 옆에 다둥이 주차장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로 그런 시스템을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회사에서는요 사장님들이 정말 고맙게 사장님 스스로다가 자기 직원들 중에 출산을 하면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사장이 직접 돈을 준답니다, 자기 사비로다가.

이런 것을 꼭 보너스 개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소득공제 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에서 다 못 하니까 좀 뜻있는 기업가 사장들이 나서 가지고 자기 직원들 출산했을 때 사장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사비를 주면 그런 것은 뭔가 국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지 막연하게 그냥 그것은 보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마무리 좀……

○김학용 위원 기재부차관보님.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예.

○김학용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회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신입 사무관들 교육받는 사람들 한 12명이랑 이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아이디어를 하나 주더라고요. 강제로 그럴 게 아니라 TV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둥이를 낳은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이런 것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여주면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어낼 거라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세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주시고 또 질책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대우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게 근로기준법이나 고용 관련된 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요 고용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은 즉각 시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카드 통합 문제는 지금은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자체가 카드사에 이렇게 뭐 돈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금고를 그 은행에, 발급하는 그쪽에다 유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카드에서 얻는 각종 혜택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국가가 국가금고를 맡기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굉장히 카드사도 가맹사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일부 혜택 또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것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통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위

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김학용 위원 이건 K스포츠랑 미르랑 다르기 때문에 전체 다해도 욕먹을 일 없고 문제될 일이 없어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하여간 바로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비, 다둥이의 행복 같은 것들 홍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저출산특위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사실 저희 홍보비 예산 삭감하라고 그러는 지적들이 계속 있으셔서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디펜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출산의 홍보비조차도 지금 디펜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점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김학용 위원님 열정적인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도 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문제랑 아동수당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좀 어렵다 이런 취지로 아까 보건복지부차관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 취지 답변을,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저희가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검토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검토하기에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상보육시스템이라든지 또 양육수당제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그렇게 이것을 결정을 전제로 해서 어떤 협의체계를 만들어서 검토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차원에서는 저희가 해외 사례라든지 다각적인 그런 검토를 하고 보사연하고도 추후에 논의될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장제원 위원님께서도 아까 아주 적절하게 질의를 해 주셨지만 사실 아동수당 문제는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뜨겁게 논의될 수 있는 의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것이 논의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선거에서 괜히…… 우리가 선거의 유·불리를 위한 아동수당 도입 문제로 논의되는 것은 국가정책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저출산특위에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정말 합리적인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을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그냥 대충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정도를 검토하실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놓으신 안도 있고요 또 새누리당 특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펼쳐놓고 지금 현재 보육시스템과 관련해서 같이 검토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소극적인 답변을 하시고 소극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국회 특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아동수당에 대한 어떤 합의를 이루어가는 노력을 하겠지만 이것은 부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관께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제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자녀카드 부분은요 접근을 지금 카드사에서나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일부 혜택 주는 것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어요. 그것 보면, 오늘도 이것 보고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무슨 다 할인하는 것 그래서 재원이 얼마 들고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장애인카드,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카드 가지고 있으면 주차 우선 구역도 있고요 또 놀이공원 가면 우선 입장도 되고요. 외국 항공기 타는 경우에 보면 외국 항공의 경우에는 누구누구에게 우선 탑승권도 주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먼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보면 장애인인 경우에 장애인의 항공료가 무료이고 동반 1인까지도 50% 할인인가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카드를 도입할 때 어떤 식으로 정부가 일을 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자녀카드는 이미 지자체가 일부 시행하고

있으니, 그 지자체의 시행모델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거라면 이 다자녀카드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하자는 것은 전혀 이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참고해서 보건복지부는 이것 다시 검토해서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우리 회의할 때 보건복지부 와서 다시 이 부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난임시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요. 의료계에서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요. 난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실상 심리적 원인도 있고 하는데 의료계나 이런 데에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난임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난임시술 지원 방법……

이 정책관 잘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와서 설명 다 들으셨을 텐데요. 새로운 난임시술, 그러니까 시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심리적·정서적인 접근으로 인해서 자연임신율이 올라가게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난임시술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수당, 오늘 보니까 수당을 조금 올려줘서 육아휴직을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상한액을 인상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육아휴직이라든지 탄력근무 같은 것을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 이러한 남성들이나 이런 직장 근무자들이 돈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거든요. 결국 환경의 문제인데요. 이 환경,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고 탄력근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 인프라 구축 같은 것을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예로 드시긴 했지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조금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제 지원을 기재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동수당을 논의하게 되면서 세제 지원, 여러 가지 세액공제 이런 부분이 사실 찔끔찔끔 되다 보면 나중에 이것 다시 거둬들일 수도 없고요. 저희가 아동수당 같은 거 도입했을 때 이것 정리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찔끔찔끔 하는 지원을 계속 늘려가는 건 당분간 좀 중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기재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아이가 있거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종합해서 우리가 아이 한 명 갖고 있으면 이러이러한 지원으로 얼마,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프랑스가 기금위원회를 두면서 이것을 다 정리해서 통합해서 아동수당 정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재원을 마련할 때 아동수당 주자 그러면서 몽땅 전부 다를 새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재정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런 걸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라도, 정교한 작업을 위해서라도 기재부가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죽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무조정실에서는 이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동수당 도입 여부를 볼 때 기존에 지급되는 여러 가지 세제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먼저 한번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그냥 어제 뉴스를 보다가 본 건데요. 분유 지원하는 게 있나 봐요. 분유의 대금인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지원되는 혜택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예,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0명 이내의……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공약에서는 '분유값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한 공약을 냈는데 점점점점 축소돼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하겠다 하다가 이제는 산모가 특별한 질병이 있어서 사실상 모유를 못 먹이는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로 바뀌었다는 지적과 함께 작년 1년 동안 지원한 산모가 얼마 안 된다—100명 이내더라고요—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을 어떤 목적을 갖고 수립했는지 이런 접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무상보육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왜 다른 것은 공짜가 안 되는데 이것은 소득 수

준과 상관없이 공짜여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는 이런 어떤 큰 정책적 고려가 있는 거지 이것이 단순히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나누는 것하고 조금 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답변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말씀 주신 사항들 더 유념해서 준비를 하고 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난임시술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저출산 보완대책에서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를 했는데 내년도 10월부터는 이게 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횟수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으로 편입이 되면 아주 일반적인 지원으로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건강보험으로 편입을 하려면 난임시술의 종류도 많고 워낙 처치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또 기술적인 사례별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술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수가를 정하는 작업이 굉장한 작업이 됩니다, 워낙 시술, 처치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1년간 관련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모이셔서 작업을 해서 내년도 10월 달에 건강보험으로 편입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준비 전까지는 이번에 보완대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대상을 소득기준을 아예 철폐를 해 버려서 혜택 받으시는 부분을 2배로 늘려서 9만 5000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리는 게 되겠고요.

분유 지원 문제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희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것은 당장 시정할 수 있는 방향대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신 다자녀카드 또 육아휴직수당에서 주로 저희가 보완대책 해서 낸 것은 남성휴직을 더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해서 실제적으로 남성휴직자가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4년의 연간 남성휴직자를 이미 저희가 6·7월 달에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는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더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차관보 이찬우 기존의 세제지원방안에서 위원장님 주신 말씀을 깊이 듣고 세제실과 협의해서 기존에 있는 내용들의 세수효과를 잘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다음번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국무조정실은 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방금 말씀하신 내용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는지 잘 점검해서 부처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다자녀카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뭐 용역해서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해서 저희 국회에서 이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경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금태섭 위원님, 김성식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부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님,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님, 이찬우 기획재정부차관보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금 태 섭	김 광 수	김 학 용	나 경 원
박 광 온	박 병 석	박 찬 대	윤 종 필

이 명 수　인 재 근　임 이 자　장 제 원
진 선 미　홍 의 락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승 기
전 문 위 원　정 순 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국 무 2 차 장　노 형 욱
사회복지정책관　최 창 원
기획재정부
차 관 보　이 찬 우
미래경제전략국장　백 용 천
보건복지부
장 관　정 진 엽
차 관　방 문 규
인 구 정 책 실 장　이 동 욱
인구아동정책관　이 강 호
보 육 정 책 관　고 득 영